



12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약세 전망

12월 국내 광고경기가 전월인 11월에 비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에너지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12월 에너지지수는 90.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KAI가 100 이하이면 금월 광고경기가 지난달보다 부진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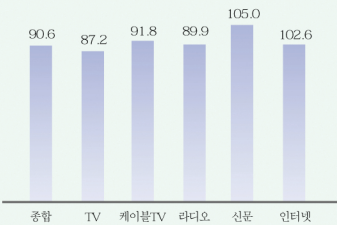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6월 남아공 월드컵과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로 인해 기업들이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며, 또 기업들이 연말 결산에 대비해 광고비를 다소 소극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KOBACO측은 분석했다. 또 신문의 경우 지수 상으로는 보험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나 계절적 비수기임을 감안할 때 낙관적이지 않으며, 인터넷의 경우 지수 상으로는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신문과 반대로 방학시

즌 게임, 영화 업종 광고와, 11월에 출시되는 태블릿PC의 광고활동이 12월에 본격화될 경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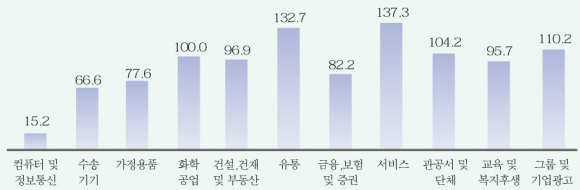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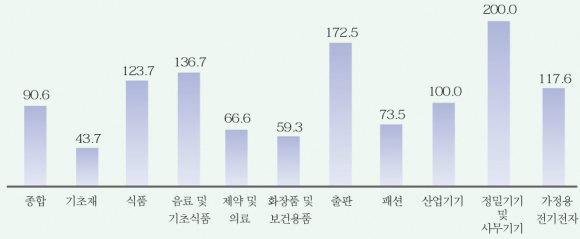
매체별로는 TV(87.2), 케이블TV(91.8), 라디오(89.9), 신문(105.0), 인터넷(102.6)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식품(123.7), 음료 및 기초식품(136.7), 출판(172.5), 유통(132.7) 서비스(137.3) 등은 호전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제약 및 의료(66.6), 화장품 및 보건용품(59.3), 수송기기(66.6)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고경기에너지지수조사(KAI: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 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KOBACO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수지 기자 susie@kai.or.kr

<표 1> 12월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12월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 기초제, 산업기기,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 화학공업, 교육 및 복지후생, 그룸 및 기업광고는 응답자 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제약이 있음.